

장성 와룡리 지하 구간 용역조사 초읽기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인 모를 '대형 땅꺼짐(싱크홀)' 현상으로 불안에 떨며 농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지하 석회산 광산이 소재한 황룡면 와룡리 인근 농경지에서 지난 2008년부터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싱크홀 현상 원인 규명을 위한 지하구간 정밀 용역조사 사업이 앞으로 발주 될 전망이다.

이 용역은 장성군이 지난 1월말 주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고려시멘트 측에 '광산 인근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가 지하 석회석 채굴에 따른 것인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3개월 이내 제출할 것'을 요구해 추진되게 됐다.

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 1월 초 고려시멘트가 신청한 건동광산 진입로와 적지물 등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조건부로 내줬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협의체 구성 지연과 국내 전문 기술진 대부분이 울산 지진 현장 조사에 투입되면서 용역사업 선정 어려움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늦게 추진되게 됐다.

황룡면 주민대책위·장성군·고려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사 협의회'에서 각각 2명씩 총 6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는 그동안 2차례 회의를 열고 최근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부 교수 2명에게 용역을 의뢰했다.

해당 교수진도 지난 4일 와룡리 싱크홀 발생지 현장 답사를 마치고, 조만간 추진 일자와 비용 등이 포함된 '용역 계획서'를 민·관·사 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용역계획서가 조차되는 즉시 '민·관·사 협의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용역사업 보고회'를 열고 협의회 결정에 따라 곧바로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늦어도 이달 내로 추진될 예정인 이번 용역은 고려시멘트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전이 많은 조사 지점 선정은 '민·관·사 협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황룡면 주민대책위는 용역조사 결과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농경지 싱크홀 현상이 광산 채굴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지반 안정화 공사 또는 농지매입 등을 고려시멘트 측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룡면 와룡리 일대에서는 지난 달 7일 오전 호남고속철도와 150m 떨어진 농경지에서 울해 들어 처음으로 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농경지

민·관·사 협의체 이달내 용역 발주기로 합의 '11년째 땅꺼짐' 원인규명...결과 따라 파장 예상

싱크홀은 지난 2008년부터 누적 횟수는 8번째다.

문제는 농경지 외에도 철도시설 공단이 뉴시스의 고속철도 안전성 우려 보도 이후 지하 시추 조사를 통해 지난 4월5일 호남고속철도 와룡천교 지하 23~31m 지점에서

800㎡ 규모의 땅속 공동(빈 공간)을 발견했다. 지하 공간은 레미콘 133대 분량(1대 6㎡)으로 메워야 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도 안전운행과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4월26일부터 5월21일까지 땅속

빈 공간에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채워 넣는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이달 안에 시작될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광산 발파 충격에 의한 인제냐 vs 지하수에 의한 자연현상 이냐'를 놓고 주민대책위와 광산 운영사인 고려시멘트 간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다름의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규 기자



초복맞이 영양기득 삼계탕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종합센터에서 열린 '초복맞이 영양기득 삼계탕 나눔 행사'에서 적십자 봉사원들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 학부모의 욕심이 부른 '고3 시험문제 유출'

아들 내신성적 끌어 올리려 문제유출 제한

의사인 학부모의 과한 욕심과 학교 행정실 직원의 도덕 불감증이 결국 고3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시험문제 유출은 학교 행정실 직원 A씨와 3학년 학부모 B씨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립학교법인인 이 학교에서 오랜기간 근무했고, 의사인 B씨는 아들이 다니는 이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학교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운영위원장이 학교의 예산운영이나 학사행정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와 B씨는 상당기간 친분을 맺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과한 욕심이 화를 불렀다.

B씨는 아들의 대입 수시전형에 포함될 마지막 시험성적을 끌어올

리려는 욕심에 위험한 거래에 나섰다. 이들의 내신이 이미 2.5 등급 이상의 상위등급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최고를 향한 부나비가 됐다.

결국 B씨는 시험지 보관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실 직원 A씨에게 일부 시험문제를 빼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5개 과목 시험문제지를 B씨에게 유출한 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뒤늦은 후회였다.

A씨는 "무엇인가에 쫓겨나 버렸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학부모 B씨가 시험문제를 달라고 해 건넸으나 시험문제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고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로 이어져 A씨와 B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졌으며, B씨의 아들도 유출된 시험문제지를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징계처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일선 고등학교는 시험을 치를 때 평가계에서 전 과목 시험문제를 수집해 교감과 교장의 결제를 받아 행정실이나 인쇄실에 문제지를 보관하고 있다. 시험문제지 보관장소는 2중의 시금치가 설치돼 있고 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청은 지난 2016년 광주 모 여고에서 발생한 성적 조작으로 광주지역 학생들이 대입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고교에서 제시험을 지르기로 해서 성적 상위권 3학년 학생들의 혼란과 학부모의 반발도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해당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감사를 하고 다른 학교의 시험문제 출제와 보안관리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국제 우편 이용 대마 밀수 외국인 교사 구속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환)는 12일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대마를 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교사 A(33·미국 국적)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 한 지역에서 우편을 이용해 대마 127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 1270g은 254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반입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주춘정 기자

높은 이자 미끼로 빌린 돈가로채 30대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원룸 주인을 속여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께 광주 서구의 자신이 사는 원룸 주인 B(68) 씨에게 "돈이 급한 사람들에 사채를 놓아 수익을 내면 매달 10%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800만원을 가로채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앞서 같은 해 B 씨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수차례 갚으면서 쌓은 신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신변에 위협이 있어 잠시 피신한다. 다음달까지는 반드시 돈을 갚을 테니 믿어달라'는 쪽지를 자신의 원룸에 남긴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A 씨는 3년여 동안 지역 내 숙박업소·캠핑장 등지를 전전하며 도주 행각을 벌인 끝에 지난 9일 경찰에 붙잡혔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7명 구속영장

고교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성년자임에도 폭력의 잔혹성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학생 10명 중 적극적으로 폭행 등에 가담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가담자 2명과 축협소년 1명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 가담자 가운데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축협소년 1명을 포함해 5명이 인치돼 있다. 영장신청 대상자 7명 중에는 4명이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고등학교 2학년생인 A(17)양을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래방에서 A양을 1차 폭행한 뒤 관악산에서 추가로 합류한 학생들과 함께 2차로 집단 폭행을 가했다.

2차 집단폭행 이후 흩어진 가해학생들 중 한 명인 B양은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가족 측에 따르면 B양은 (A양이) 선적을 한다며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단체 대화방에서 A양을 따돌렸으며 이후 A양은 가해학생들로부터 각종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 중 일부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A양이 만나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선배배를 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잠든 취객만 노려 금품 훔친 30대 구속

술에 취해 주차된 차 안에서 지하철에서 잠이 든 피해자들만 노려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B씨의 목걸이와 휴대전화, 현금 등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은 몸을 뒤쳐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학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